

since 1986

SUNBO FAMILY

2012년 사업계획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2년 12월 15일

vol.107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12년 실적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지난 12월 8일 우리 회사는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3년을 대비하는 '2012년 실적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12년 실적과 2013년 사업에 대한 계획 요약발표가 있었으며 조선 및 해양산업의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영업, 설계부 등 지원부서의 발표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고 오후에는 공장부서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끝나고 최금식 대표이사의 강평이 있었으며 기념촬영으로 보고회는 마무리 되었다.

특히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대표이사 강평은 선보인으로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평 핵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강평 핵심 4가지

1.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민할 때다. 조선경기가 하락 중이고 해양산업은 신규 수주가 늘어가고 있다. 답은 나와 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해양산업이다. 해양산업을 염두에 두고 회사 발전과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2. HSE를 정착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을 만들자. 구평공장에서 진행 중인 해양프로젝트 진행시 선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며 타 공장은 임동균 과장의 도움으로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신규영업창출

우리의 미래 먹거리(새로운 사업)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BWMS(Balast Water Management System) 과 같은 그린선박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연구개발과 신규로 진행되는 해양산업의 물량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 명품모듈생산

AS와 오작동을 제로화하여 고객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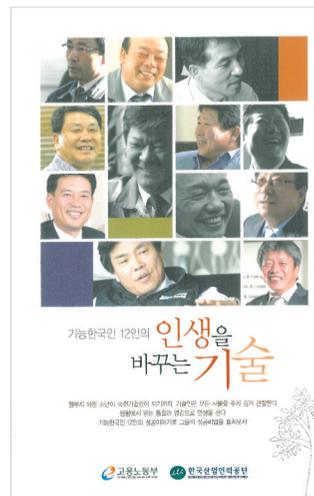
우리 회사 현장 방문



지난 12월 13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공장 현장을 돌아보고 조선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조선산업 경기침체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김해와 부산의 5개 업체를 돌아보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1박 2일 일정이었다. 현장 방문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자문관, 미래성장조정과장 외 10명이 대동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금식 대표이사과 김강수 고문, 곽종렬 부사장과 진병석 전무, 김청옥 이사가 함께 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존 조선업에 국한되었던 사업영역을 해양플랜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게 전하고 Vendor 등록, Track record 부족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2012년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최금식 대표이사 수기 실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기능한국인에 선정된 기능인들의 성공스토리를 담은 수기집 '기능한국인 12인의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위상 및 사회적 기여 등을 홍보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숙련기술인들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출판물이다.

지난 6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의 수기는 '기술은 그 사람의 이름이자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최 대표이사는 수기에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HMD 동반성장 캠페인, 우리 회사에서 열어 우리 함께 손잡고 미래로



지난달 11월 16일, HMD(현대미포조선)의 동반성장기술지원과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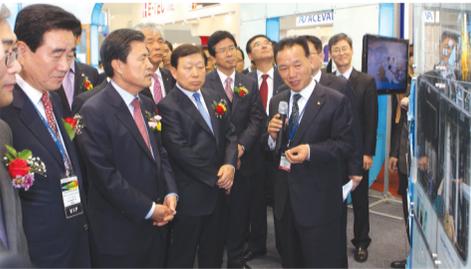
캠페인은 오전 6시 50분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 다대1공장과 2공장, 영도공장 등 3곳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며 동반성장 기술지원과를 홍보하는 한편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는 멘트도 잊지 않고 전하였다. 9월 1일부로 신설된 HMD 동반성장기술지원과는 공방식 부장을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선각, 의장, 도장, 설계, 안전관련 기술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들은 전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우리 회사 많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였다. 공방식 부장은 캠페인을 마무리 하며 통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협조가 필요한 여타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기를 바란다며 양 사의 동반성장 의지를 전하였다.

(HMD 동반성장 기술지원과 공방식 부장 250-2264)

SUNBO NEWS 선보뉴스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참가



지난 11월 14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로 사흘간 열린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우리 회사도 참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 판로를 모색했다.

국제해양플랜트 전시사무국은 행사 기간 중 15억 3800만 달러(약 1조 6900억 원)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100여 건, 2억 2300만 달러(약 2400억 원)는 실제 계약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4대 대형조선소 및 아커 솔루션, 카메론 등 27개국 400개사가 참가했다.

우리 회사는 세계 해양플랜트 선주와 오일메이저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전시 행사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홍보하고 해양기자재 국산화를 통하여 시장진입을 모색하고 판로를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DSME와 구매 조건부로 개발 완료된 Heli-Refueling system과 Calorifier package를 론칭하므로써, On/Offshore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3대 Major Shipyard사와 Oil Major사에 당사 제품을 홍보하는 등 우리 회사의 Capability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삼성 테크윈(EPC)은 우리 회사 기술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가까운 미래에 협업을 예정하기도 하는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흘간 해외바이어 2100여 명을 비롯해 약 2만 명이 전시회를 찾는 등 흥행 면에서 충분히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번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는 우리 회사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해양사업으로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12대 안전 수칙 이렇게 이해하자!

-  ▶ **고소작업 시 그네식 벨트 체결**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반드시 그네식 안전벨트를 체결한다.
-  ▶ **전기작업 전 경고 및 잠금조치**
통전 시 결선을 하지 않는다. 임의 작동 예방을 위해 경고 및 잠금 조치를 하고, 이를 임의 해제하지 않는다.
-  ▶ **작업허가 규정 준수**
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고, 허가서 상의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밀폐구역 출입 시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이행한다.
-  ▶ **작업 전 현장 지적확인 실시**
작업 전 작업조장 주관 현장위험예지 활동을 통해 작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  ▶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 **권상 중 블록/자재 하부 출입 금지**
운반경로 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대피요청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도장 및 화기 화재작업 금지**
사전 작업허가서 발행을 통해 화재작업을 방지하고, 화기작업 전 이면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확인 및 제거한다.
-  ▶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허가 없이 족장, 핸드레일을 훼손하거나 지게차/고소차의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다.
-  ▶ **운전 중 과속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휴대전화나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약물 사용 및 음주 금지**
작업이나 운전엔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  ▶ **지정구역 외 흡연 금지**
재떨이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며, 보행이나 작업 중에는 흡연하지 않는다.

SUNBO LIFE 추천여행지



생명의 경이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철새들의 천국
창녕 우포늪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여느 해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가까운 여행지를 찾아 떠나자. 이번 달에는 창녕 우포늪을 소개한다. 아직 우포늪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겨울에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 사계절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봄이면 파릇파릇 생명이 움트고 여름이면 초록의 향연과 함께 왕버들이 그늘을 드리운다. 가을엔 오색찬란한 한 폭의 수채화로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사색의 세계로 안내한다. 우포늪은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지난 1997년 정부가 자연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1998년에는 물새 서식처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해 람사르 습지로 되었다.

● 1억 4천만 년의 시간을 확인하는 곳



우포늪에는 4가지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1코스는 세진주차장-우포늪 대대제방-우포늪전망대-쪽지별과 우포늪 사이로 이어진다. 1시간 거리다. 대대제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큰기러기, 오리, 고니 등 철새 무리 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코스는 세진주차장-대대제방-배수장 뒤편-토평천 건너-사지포늪과 우포늪 사이 뚝방길로 이어지는 3시간 코스다. 3코스는 창녕읍에서 이방 대지 방면 마을버스를 타고 장재 마을에서 내려 늪을 따라 들어오는 2시간 코스로 왕버들 군락지와 나루터 모습을 담아볼만 하다. 4코스는 창녕읍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우안마을에서 하차, 들길을 따라 걷다 가마골 앞 수로를 따라 접근하는 코스로 가시연 군락지, 1억 4천만년의 시간을 말해주는 건흔 화석과 물결무늬 화석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우포늪생태관을 꼭 한 번은 둘러보자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우포늪생태관'에 들러보는 것이 좋다. 우포늪생태관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다. 생태관은 생태환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우포늪의 이해', '우포늪의 사계', '살아있는 우포늪', '우포늪의 가족들', '생태환경의 이해' 등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시실에는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 영상 등을 볼 수 있고,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며 입장료는 2천원.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유여면 세진리 232 • 문의 : 055-530-2690)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우수 협력사 탐방

“세계적인 그레이팅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 명진기술(주) | 김동규 대표이사



명진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김동규, 경북 경주시 내남면)는 우리 회사와 더불어 현대미포조선, DKT 성진지오텍 등과 주 거래를 하고 있는 Steel Grating 전문 제조업체이다.

김동규 대표는 육상, 해양플랜트의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관리자로 20

여 년간 근무해 오던 중 설계와 기술을 제공하는 도매업을 하게 되었고 2012년 7월, Steel Grating 전문 제조업체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Steel Grating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희귀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10여 개의 제조업체가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명진기술은 후발업체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직원 모두가 일심단결로 생산성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와 현장을 오가며 쌓인 노하우로 현재 조선과 해양산업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가진 김대표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Steel Grating은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유럽, 한국의 순서로 시장이 형성되어

오다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중국이 뛰어들어 단기간에 Steel Grating 생산 1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품질과 AS면에서 월등히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중국과 경쟁 한다면 우리나라가 1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명진기술도 일조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명진기술(주)의 사훈 ‘가자 세계로!’는 중국을 넘어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각오다.

우리 회사와는 2006년부터 거래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보공업의 일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가 빨리 대응하지 못해 현대미포조선까지 가서 직접 설치까지 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의 경험 미숙이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보 관계자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원만히 해결되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기술은 지난 7월 제조 부문에 뛰어난 후, 우리 회사의 물량을 쳐내느라 직원들이 철야작업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경험미숙은 성실과 우직함으로 메워 나가고 있다고. 현재 보다 미래가 더욱 가치 있는 기업이 되리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친 김대표는 지금껏 우리 회사와 명진기술이 오랜 파트너로서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왔다.



최홍렬 이사의 추천 블로그

함께 나누는 한 잔의 추억
{ 우리 술, 맛을 찾아서 }

http://blog.naver.com/woori_sool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동문회다 친목계다 각종 모임에다 회사 송년회, 신년회 등 회식이 줄을 잇는다. 자칫 술로 인해 몸을 망칠 수도 있는 계절이다. 하지만 진정한 애주가 한 잔의 술에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한 잔의 술로 인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이번 호에서는 술과 관련된 블로그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술과 등산에 '환장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블로그 '우리 술, 맛을 찾아서'(http://blog.naver.com/woori_sool). 블로그에는 술 이야기뿐 아니라 안주이야기, 사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마시는 이야기', '우리술 탐구', '지역별 우리술 (전통주를 찾아서)', '酒시음노트', '좋은술' 등 술에 대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모음 카테고리 '맛있는 이야기', '우리집 술안주', '맛있는 맛집', '전통주 맛집' 등 애주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모음 카테고리, '일상이야기', '소소한 행복' 등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블로그를 통해 주류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신제품개발팀 | 김동관 대리

「 언제나 앞서가는 기업이 바로 선보입니다! 」

도 힘듭니다. 우리 선보는 이러한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늘 한 발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선보입니다.

Q.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시겠습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장경험이 전무했는데, 개발팀 특성상 설계를 시작으로 설치,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지요. 여름에 찌는 더위 속에 고생도 해보니 현장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일을 잘 마무리 지으면 만족감이 배가 됩니다. 또, 요즘은 지적재산권(특허관련)이 중요시 되는데 이미 개발중인 제품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는데 자부심이 생깁니다.

Q. 프로젝트 진행하며 느낀 점은?

설계와 생산은 부서가 다르지만 우리 개발팀은 함께 일을 진행합니다. 일을 할수록 다른 부서에 대한 고충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보의 개발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참 멋진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Q. 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발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회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부담은 매우 큰 부서입니다. 개발팀의 특성상 보안 등의 이유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유할 수 없어 대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복도나 식당에서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라도 나누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Q. 선보 가족이 되신 게 언제인지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 5월에 입사했으니 내년이면 3년차가 되겠네요.

Q. 선보가족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형 조선소들이 해양플랜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인데 해양플랜트 장비는 고가의 수입품이 대부분이며 A/S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2공장 자재지원팀 | 조경선 팀장

「 쓴소리 많이 해도 잘 이해해주는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

자로 뽑아주시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역시 칭찬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Q. 입사는 언제하셨는지요?

입사한지 8년째입니다. 이전에 우리 회사로 볼트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지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10년이 넘었죠.

Q.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힘든 점이 있다면요?

현장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 좋은 소리

보다 나쁜 소리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동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추운 겨울에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했으면 합니다. 다치면 본인이 가장 손해지요. 동료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Q. 다음 칭찬주자를 추천해주세요.

늘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배송용 대리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Q. 2012년 마지막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일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현장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저를 칭찬 릴레이 주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다대공장	황지석 (12.24)
	박용갑 (12.20)
	최동배 (12.14)
	최순찬 (12.08)
	장형구 (12.29)
	신승훈 (12.18)
	강현욱 (12.27)
	정차균 (12.11)
	김대관 (12.26)
	현정환 (12.26)
	정금영 (12.09)
	박황수 (12.28)
	박재용 (12.14)
	김기주 (12.14)
	문종현 (12.06)
	최규만 (12.15)

구평2공장

구평2공장	방성국 (12.21)
	정맹호 (12.20)
	양정수 (12.29)
	조남석 (12.15)
	박형만 (12.22)
	하만수 (12.31)
	강용민 (12.17)
	고은상 (12.30)
	장정현 (12.10)
	조 준 (12.06)
	양철균(12.03)

영도공장

영도공장	성창훈 (12.10)
------	-------------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영업	문해기 (12.05)
설계부	황세연 (12.20)
2공장	장상권 (12.26)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